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¹⁾

A Comparison of Family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OECD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으로 정의된다.²⁾ 즉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과 현물형태를 가지고 있다. OECD 국가별 지출의 비교를 통해서 각국이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 OECD Social Expenditure Data이고, 일명 SOCX data라고 불리운다. OECD 사회복지지출은 총 9개 항목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가족복지지출을 중심으로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 SOCX data에서는 아동복지지출을 가족부분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아동에 대한 지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족복지지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동가족복지지출’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낮은 수준의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예산의 0.6%를 차지할 뿐이다.³⁾ 이처럼 정부는 최소한의 수준

1) 보고는 ‘김미숙·정익중·이주연·하태정(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2) 고경환·장영식·김재진·정무성·강지원(2009).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3.

3)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사회복지재정DB.

으로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의 대상도 매우 협소하여 일반아동은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고 있다. 물론 복지예산의 확보만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서 아동의 삶의 질에 제고하는데 주력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가족복지지출 구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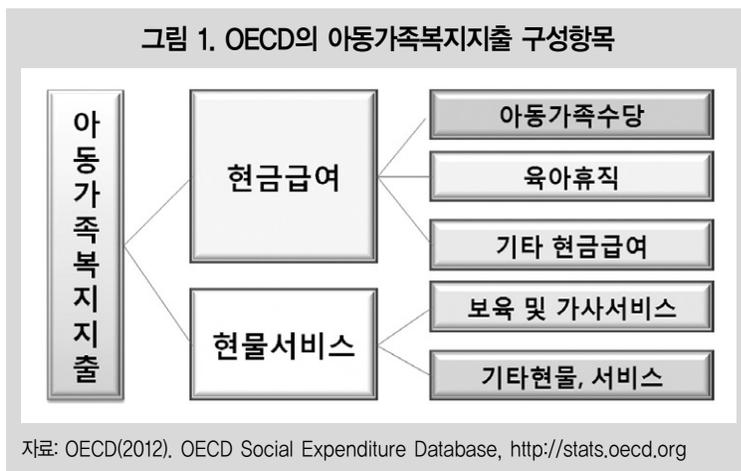
OECD에서 제시하는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구성 항목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다시 다양한 항

목을 포함하는데,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육아휴직(Maternity & Parental Leave) 및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가 포함되어 있고, 현물서비스에는 보육·가사서비스(Day-care/Home-help Services)와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이 포함된다.⁴⁾

아동가족복지정책이 국가별로 상이하듯이 아동가족복지지출 구분에 따른 세부지출 항목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OECD 대표국가로서 본 고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의 세부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예를 들어 TANF 등) 및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금급여보다는 현물지원의 유형이 많은데, 여기에는 학대아동지원, 가정위탁, 가족보존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중심을 이루며 있고,

이외에도 보육, 영양 및 급식 및 양육비집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현금급여에는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CNAF)과 육아휴직급여(첫째아 6개월, 둘째아 이상 3세까지



4) OECD(2012). Social Expenditure.

지급)와 출산수당(Prime a la Naissance) 등이 있고, 현물지원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주·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있다. 영국은 만1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과, 현물급여로 육아휴직급여, 아동세금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 및 가사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타 급식 및 식품/음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본은 현금급여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현물지원으로는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현금급여로 16세 미

만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가족수당과 총15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현물지원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서비스, 가사지원 및 기타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는 달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것에는 한부모가족수당, 위탁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이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와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발달계좌(CDA)가 있다. 현물지원에는 보편적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표 1. OECD 주요국 아동가족복지지출 세부항목 비교(2009년)

국가	구분	항목	세부항목 구성
미국	현금	아동가족수당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현물	보육·가사지원	보육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아동학대관련 지원, 위탁양육, 가족보존서비스,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양육비집행서비스, WIC(Special support food programmes for Women, Infants, Children), 아동영양 및 급식, 음식지원
프랑스	현금	가족수당	보편적 가족수당(Caisse national d'allocations familiales-CNAF: 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s) 및 가족수당(가족금고에서 지원)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수당 등
		기타 현금급여	자영업자 현금급여(RSI)
	현물	보육·가사지원	저소득층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주정부·지방정부공무원 등 현물지원
영국	현금	아동가족수당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기타 현금급여	아동세금크레딧, 저소득층 소득지원
	현물	보육·가사지원	보육서비스, 가족지원,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학교급식, 식품/음식지원, 기타 사회서비스

〈표 1〉 계속

국가	구분	항목	세부항목 구성
일본	현금	아동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타 현금급여	지방정부공무원 상호부조금
	현물	보육·가사지원	방과후 보육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기타 6세 미만 보육서비스 등
스웨덴	현금	아동가족수당	보편적 가족아동수당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타 현금급여	기타급여
	현물	보육·가사지원	아동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기타 사회서비스 지원
한국	현금	아동가족수당	한부모가족수당, 국가유공자연금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기타 현금급여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등
	현물	보육·가사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지원, 가사지원 아동폭력/성매매 피해자지원 등
		기타 현물지원	아동시설지원,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등

자료: OECD(2012). Country Note, Database on Social Expenditure,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3.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

OECD 국가 34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수준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살펴보았다.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란 OECD가 파악하는 사회복지지출 예산 중 하나로 “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급여(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출”이다.⁵⁾ OECD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최저인 국가는 멕시코(7.7%)이었다. 주로 북유럽 및 서구유럽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한국과 남미, 터키 등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 9.3%로 순위로 보면 OECD 전체 34개국 중 33위이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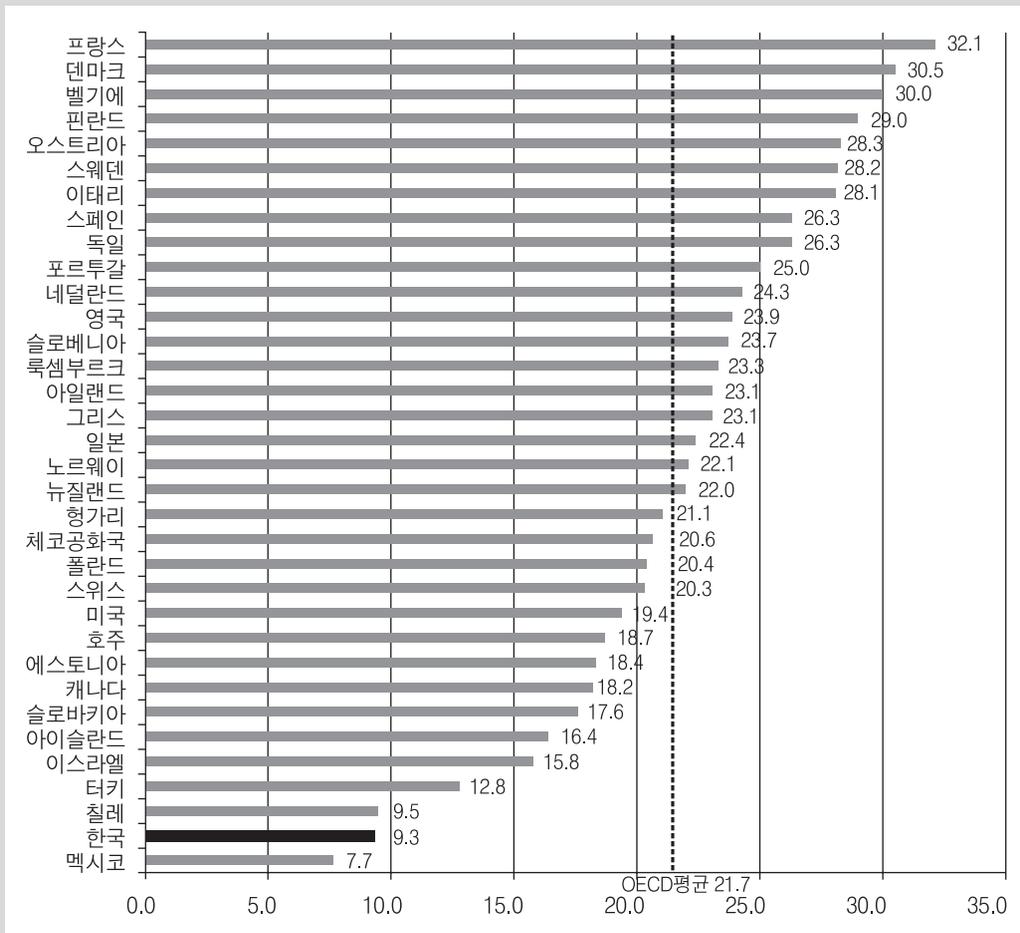
5) 고경환·강지원·정영애·임완섭(2011).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2.

OECD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의 3.5분의 1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19.4%)이나 일본(22.4%)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2.3%(2009년 기준)이다(그림 3 참조). 아동가족복지지출이 3% 이상으로 높은 국

가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헝가리,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은 노딕국가와 일부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이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와 남유럽국가들은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

그림 2.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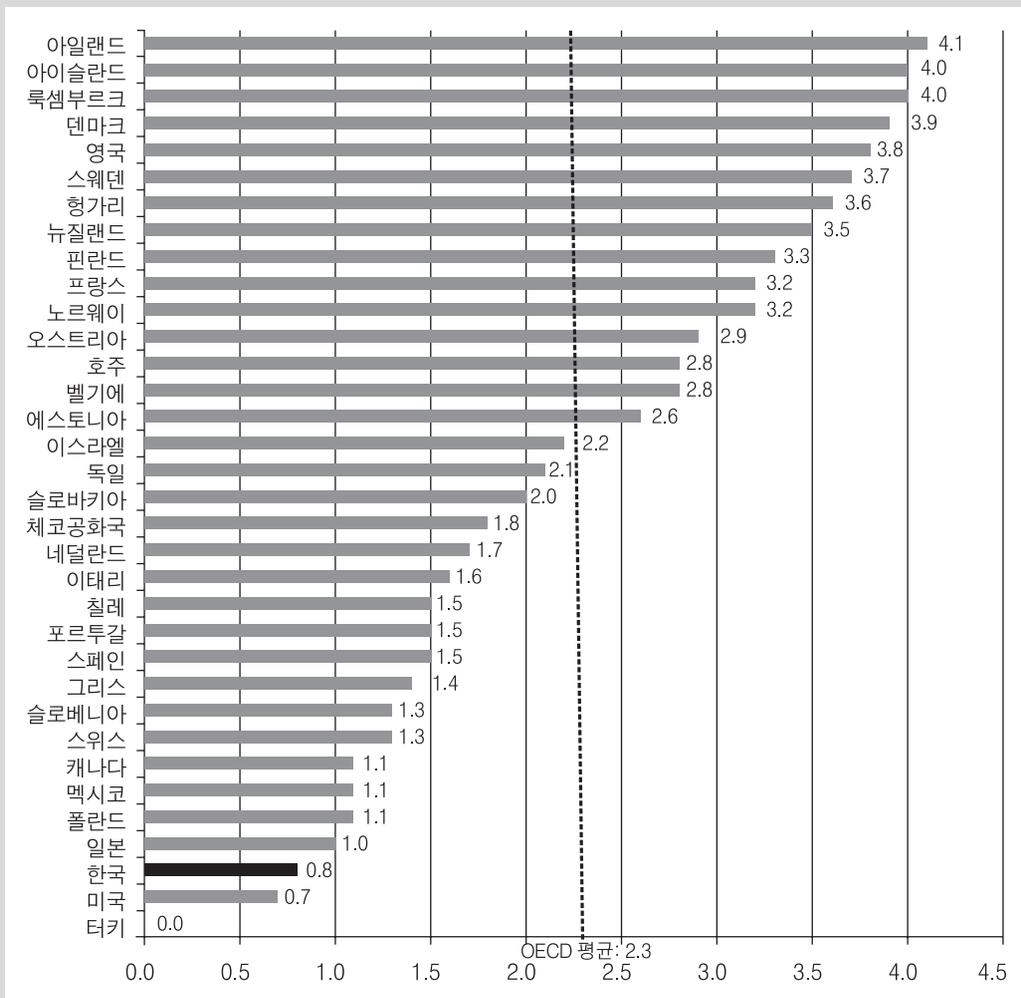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로 지출이 낮아(0.8%),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며,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4.1%)의 4.5분의 1 정도인 상황으로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중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이 어떠한 비중을 이루고 있는지

제시하였는데, 서구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과 현물의 비중이 유사하게 높은 편이었으며, 북유럽은 현물비중이 다소 높은 국가가 더 많았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의 경우 총 지출비율은 GDP 대비 0.9%에 그쳤으나 현금과 현물 비중이 균형을 이룬 형태를 보인데 비해, 한국은

그림 3.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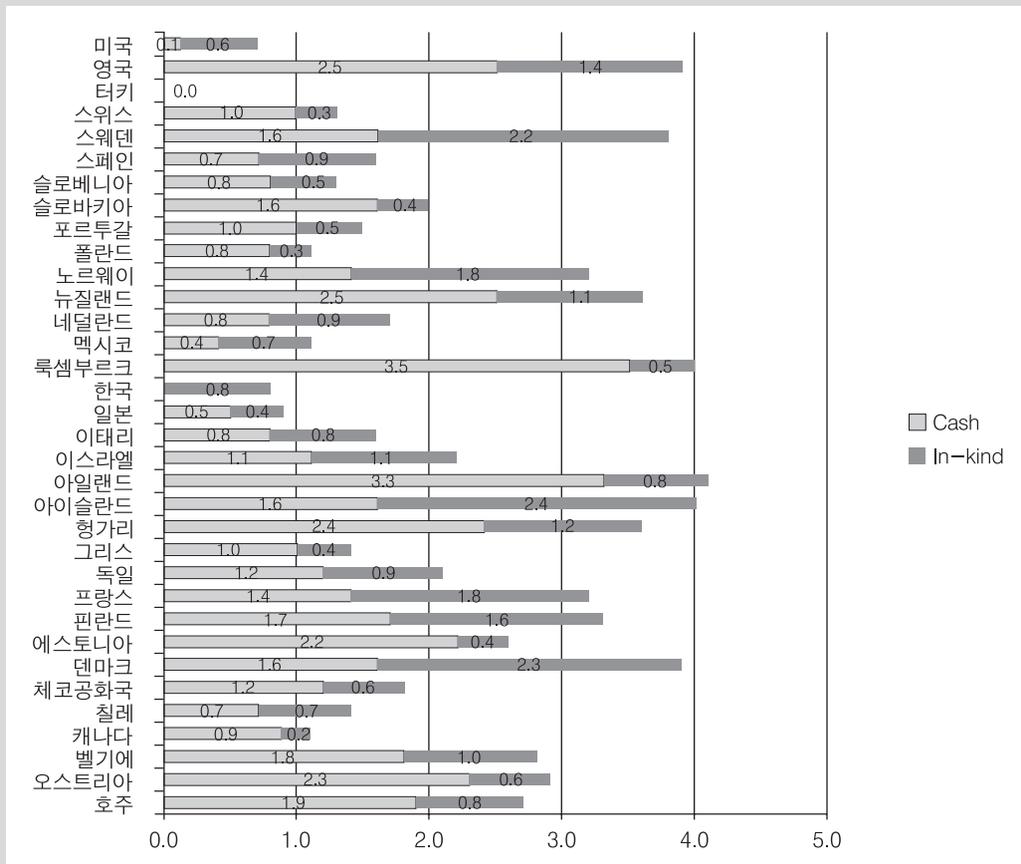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현물지원이 대부분(0.8%)을 차지했다. OECD 전체 국가 중 아동가족지출이 전무한 터키를 제외하면 한국은 현금급여의 비중이 가장 낮은 0.1% 미만에 불과하다.

4. OECD 5개국(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좀 더 상세히 비교·고찰하기 위하여 OECD 주요국 5개국을 선정⁶⁾하여 국가별 지난 20여 년간의 지출

그림 4. OECD 국가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현금 및 현물 비율 비교(2009년)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6) 주요국의 선정기준은 OECD 선진국 중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 이상인 3개국(프랑스, 영국, 스웨덴)과 지리상 인접국(일본, 미국) 등으로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함.

추이와 분야별 및 아동가족복지 세부항목별 지출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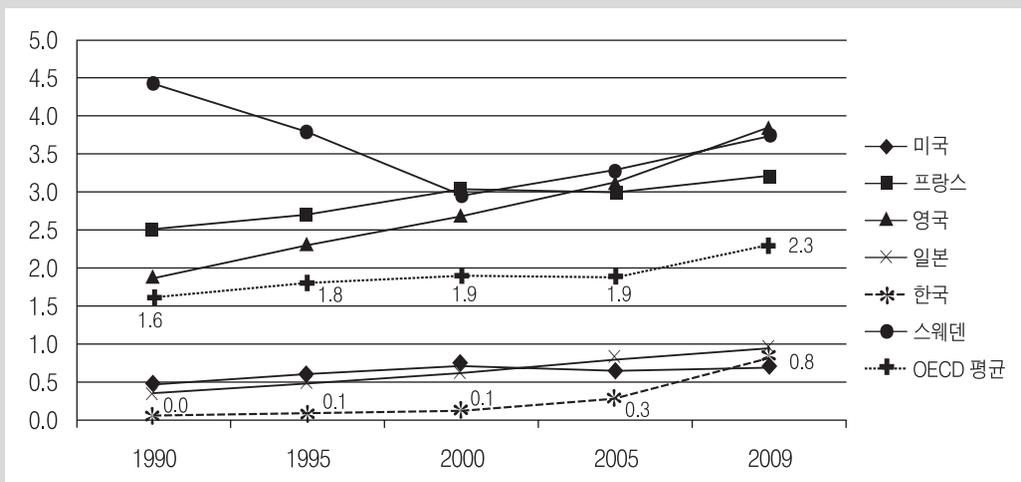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5 참조). 한국의 경우, 2005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들어 0.8%로 급증하였으나, 절대 지출규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2000년까지 지출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출수준이 낮은 편이며 200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OECD 평균은 1990년 1.6%에서 2009년 2.3%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5년 이후 0.4%pt나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의 변화 추이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지출수준이 가

장 높은 스웨덴은 2000년 800달러에서 2009년 1,400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 300~400달러 수준에서 2009년 1,100~1,300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0년까지 19달러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2005년 58.2달러, 2009년 219달러로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아동가족복지지출액은 매우 적은 액수이다. OECD 전체 평균은 1990년 257.5달러에서 2009년 817.1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동가족복지분야의 지출을 타 분야(노인 및 장애인)와 비교하여 보았다(표 2 참조). 전반적으로 노인대상 지출추이는 상당한 증가추이이고, 장애인 대상 지출추이는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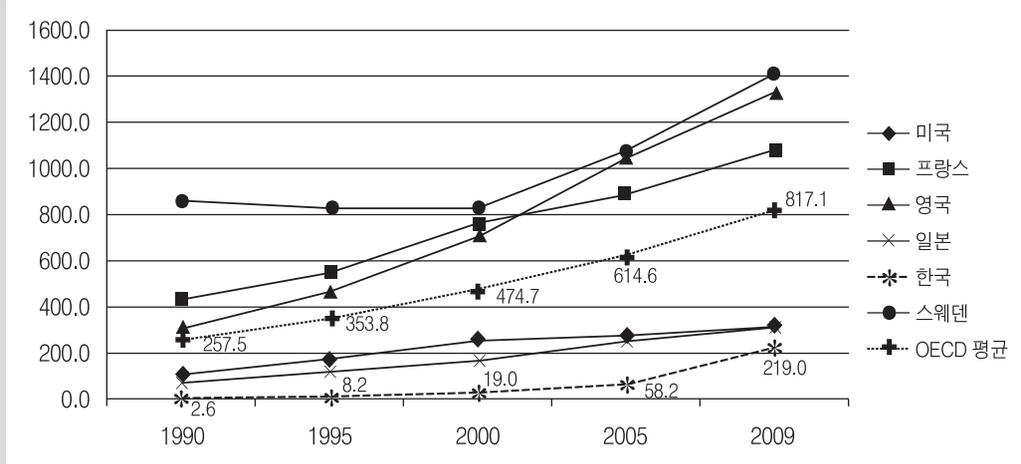
그림 5.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추이 비교(1990~2009년)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그림 6. OECD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1990~2009년)

(단위: at current prices and current PPPs, US dollars)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등은 노인 분야에서 다소 급격한 지출 증가 추세이고, 스웨덴의 경우는 아동가족지출의 감소가 눈에 띈다. 이는 일본과 프랑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스웨덴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의 경우 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지출 등 전 분야에서 지출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나 지출 증가추이를 볼 때, 장애인대상 지출은 약간의 성장만 있는 반면, 노인과 아동가족분야에서의 지출은 2005년 이후 증가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볼 때, 분야별 지출의 구성비(2009년 기준)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아동가족

분야지출을 1로 놓았을 때, 분야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미국의 경우 아동가족:장애인:노인의 구성비는 대략 1:2:9이며, 일본 1:1:10, 프랑스 1:0.6:4, 스웨덴 1:1.3:3, 한국 1:0.8:2.6, 영국 1:0.8:2의 비율을 보여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분야별 지출격차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OECD 전체 평균은 노인 6%대, 장애인 2.3%대, 아동가족 2%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노인분야와 아동가족 분야에서 지출이 다소 증가하여, 2009년 구성비는 1:1:3(아동가족:장애인:노인, 2009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출규모로는 한국의 2~3배 수준이나 구성비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7) 2009년 기준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한국은 GDP 대비 노인 및 장애인분야 지출비율은 가장 낮으며, 아동가족지출수준은 미국이 가장 낮음.

표 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분야별 복지지출 추이 비교(1990~2009년)

국가명	분야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미국	노인	5.2	5.4	5.1	5.3	6.1
	장애인	1.0	1.2	1.1	1.3	1.5
	아동가족	0.5	0.6	0.7	0.7	0.7
	보육	-	0.0	0.3	0.3	0.3
	보육 외	0.5	0.6	0.4	0.4	0.4
프랑스	노인	9.2	10.6	10.5	10.9	12.3
	장애인	2.1	2.1	1.7	1.9	2.0
	아동가족	2.5	2.7	3.0	3.0	3.2
	보육	0.7	0.8	1.2	1.2	1.3
	보육 외	1.8	1.7	1.8	1.8	1.9
영국	노인	4.8	5.5	5.5	5.9	6.7
	장애인	2.2	2.9	2.5	2.3	2.9
	아동가족	1.9	2.3	2.7	3.2	3.8
	보육	-	-	0.7	0.8	1.1
	보육 외	1.9	2.3	2.0	2.4	2.8
일본	노인	4.0	5.2	6.8	8.6	10.4
	장애인	0.6	0.7	0.7	0.7	1.0
	아동가족	0.4	0.5	0.6	0.8	1.0
	보육	0.2	0.2	0.3	0.3	0.4
	보육 외	0.2	0.3	0.3	0.5	0.6
한국	노인	0.6	1.1	1.3	1.5	2.1
	장애인	0.3	0.4	0.4	0.5	0.6
	아동가족	0.0	0.1	0.1	0.3	0.8
	보육	0.0	0.05	0.09	0.2	0.7
	보육 외	0.0	0.05	0.01	0.1	0.1
스웨덴	노인	8.6	9.8	9.1	9.4	10.2
	장애인	5.5	4.9	5.1	5.5	5.0
	아동가족	4.4	3.8	3.0	3.3	3.7
	보육	2.0	1.7	1.3	1.6	2.0
	보육 외	2.2	2.1	1.7	1.7	1.7
OECD평균	노인	6.0	6.4	6.4	6.6	7.3
	장애인	2.3	2.4	2.3	2.3	2.4
	아동가족	1.6	1.8	1.9	1.9	2.3

자료: OECD(2012). Country Note, Database on Social Expenditure,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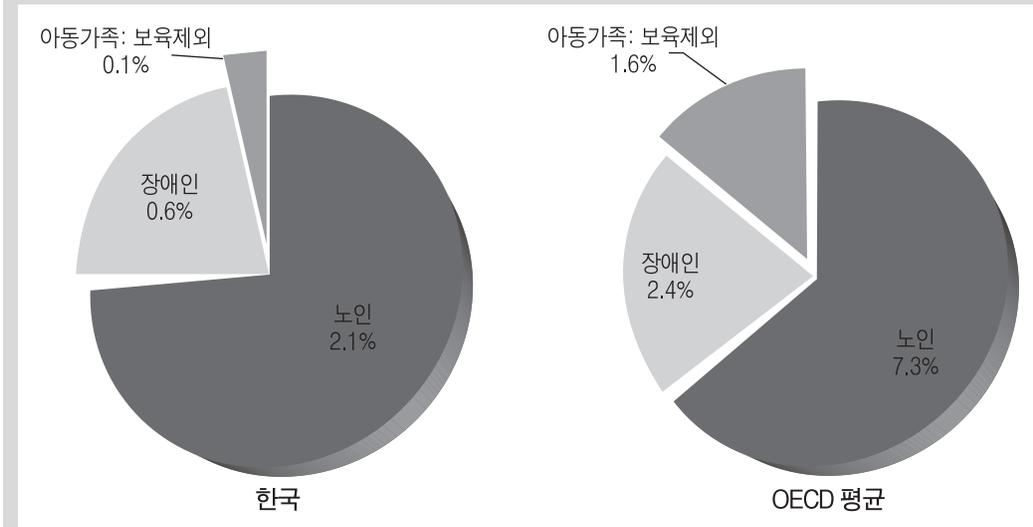
아동가족복지지출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보육 외 지출이 보육지출을 상회하는 데에 비하여,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보육지출이 보육 외 지출의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장애인 및 노인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장애인분야의 60%, 노인분야의 20%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장애인분야의 16%, 노인분야의 4% 수준에 불과하여,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분야 지출은 타 분야 지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노인과 장애인 분야는 3~4배가 적은 반면, 아동가족분야 지출은 16배 이상 적은 상황이다.

5. 아동가족복지 세부항목별 OECD 5개국과 한국 비교

이번에는 아동가족지출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방사형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의 각 축은 지출의 세부항목(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 기타현금급여, 기타 현물서비스 등)으로 각 국이 어떠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지출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전반적으로 OECD 선진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아동가족수당과 육아휴직, 보육 등에 치중되어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의 비중이 많고, 스웨덴은 보육서비스에 지출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은 현금과 현물분야에서 모두 많은 비중의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그림 7.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과 타 분야 지출 비중 비교(2009년)

(단위: GDP 대비 비율)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반적으로 프랑스, 영국 및 스웨덴과 같은 복지 선진국은 수당과 육아휴직 및 보육이 균형적으로 지출되었으나, 일본은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미국은 규모도 작으며 특히 현물서비스에 치중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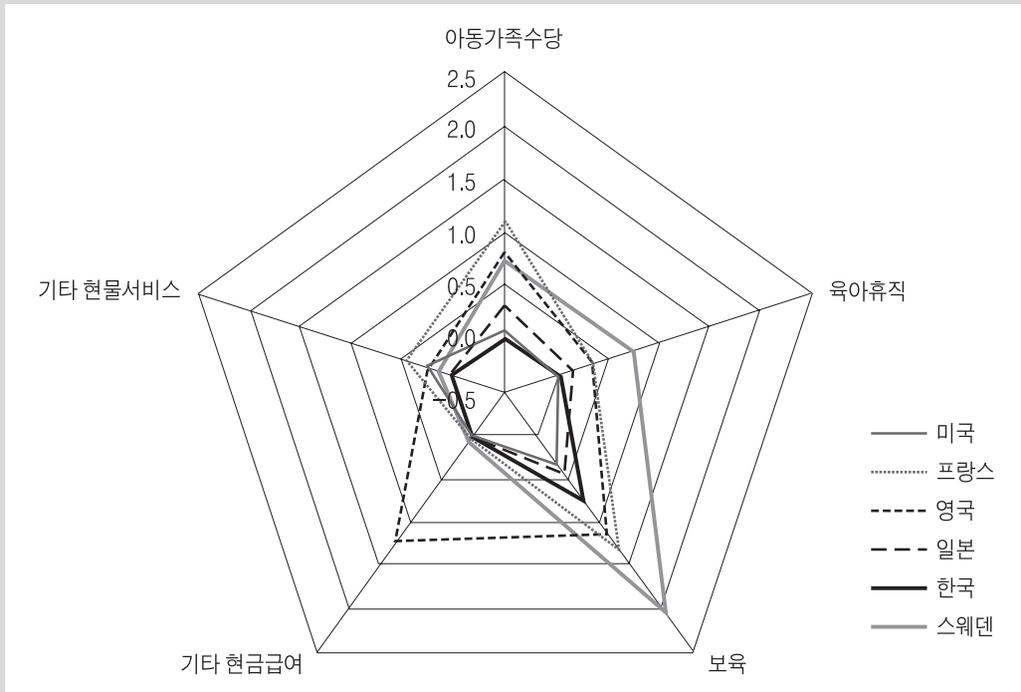
한국은 모든 국가 중 지출규모가 가장 낮았으며, 현물서비스에 치중하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동가족복지지출 중 보육서비스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이 전반적으로(보육제외) 아

동복지와 관련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이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책임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급여의 형태도 현금보다는 현물지원 위주로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중시하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는 OECD 국가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과 아동의 삶의 질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가족복지지출 및 그 하위항목별

그림 8.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항목별 지출 구조 비교(2009년)

(단위: %)



주: 각 영역별 지출수준이 낮은 한국의 지출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최소값을 -0.5%로 설정함.
 자료: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8) 아동의 삶의 질의 지표로 상대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을 사용함.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 및 가사서비스) 지출과 아동빈곤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가족 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계수는 -0.5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지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아동가족수당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⁹⁾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별로 아동가족수당의 대상, 지급기준 등 보다 정밀한 수준에서 자료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급여(-0.476**)와 보육가사서비스(-0.504**)의 경우 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으며, 특히 보육가사서비스의 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 계수는 제시된 3개 하위항목 중 가장 높았다.

6. 나아가며

본 고에서는 OECD 전체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고 OECD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가사서비스, 기타 현금 및 현물지원 등의 추이 및 구성비 등을 살펴 보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34개국 중 32위, 2009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 비교에서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¹⁰⁾,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현금급여

표 3.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의 삶의 질(아동빈곤율) 상관관계

구분	아동빈곤율	아동가족지출전체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가사서비스
아동빈곤율	1.000				
아동가족지출전체	-0.574**	1.000			
아동가족수당	-0.304	0.718**	1.000		
육아휴직급여	-0.476**	0.389*	-0.028	1.000	
보육가사서비스	-0.504**	0.689**	0.165	0.258	1.000

주: *p<.05, **p<.01

자료: 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 2008년)은 OECD Family Database 참조.

http://www.oecd.org/던/socialpoliciesanddata/oecdfamilydatabase.htm#child_outcome

아동가족복지지출 및 세부 지출(2009년)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참조

9) 류연구·백승호(2011). 복지국가의 아동·가족 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pp.65~99.

10) 김미숙·장익중·이주연·하태정(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다는 ‘현물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이 균형적인 편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가 거의 없는 편으로 앞으로 현물지원 정책과 어떻게 균형을 갖추어 나갈지 고려하여 아동복지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초등이상 연령대의 아동이 복지 지원대상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보육 외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 보호와 저소득

층 중심의 방과후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수당지출 비중이 아동빈곤율과 큰 관계가 없음을 볼 때 향후 아동가족수당의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정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수당이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급여와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 및 보육서비스 지출 비중이 아동빈곤율과 상당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육아휴직 대상자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율화가 제고되면 아동빈곤율이 완화될 것이다. 본문